

3월 자선+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에

소정 변관식 '춘경산수' 등

시작가 450~500만원에 출품돼



시작가 450만원, 소정 변관식, 춘경산수 春景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30x127cm, 1958, 추정가 600~1000만원. (사진=케이옥션 제공)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이 22일부터 3월 '자선+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지만 계절은 점점 봄 기운이 감돌고 있다. 외출도 자제하는 분위기속에 온라인 경매는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대거 선보인다.

'화조도'와 함께 소장 변관식 '춘산행려', '춘경산수', 정진 이상범의 '춘경산수' 등이 시작가 450만~500만원에 출품됐다.

한국화는 1990년 대 이후 지난 20년 간 서양화보다 저평가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 최근 컬렉터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케이옥션에 따르면 주거 환경의 서구화, 시대에 뒤떨어진다 선입견 등으로 거래가 저조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화 거래 건수가 증가 애호가들 사이에 한국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케이옥션의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는 메이지 경매에는 출품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와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여, 작품 감상과 컬렉션의 재미와 범위를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경매에는 국내에는 다소 낯설지만 개성 있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과 현대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클라우스 괴디케, 엘리아 시지첼리, 우타 바르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클라우스 괴디케는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현대 사진

의 거장 배른트 & 힐라 베허 부부의 뒤를 잇는 21세기 배허학과 중 한명이다. 모던풍의 정물화를 떠올리는 그의 사진은 모란디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데, 현대 사회의 대중성과 익명성 속에서 소모 후 버려지는 일상적인 용품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다.

경매 출품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는 서울 강남 신사동 전시장과 케이옥션 홈페이지에서 3월 4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매 마감은 3월 4일 오후 4시부터 10점씩 5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양준일 에세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정상 차지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 출간과 동시에 만화 '흔한남매3' 제쳐

가수 양준일의 에세이가 출간과 동시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차트 정상 차지했다.

지난 12~18일 차트에서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은 유튜브 콘텐츠 만화 '흔한남매3'와 책사점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을 따돌렸다.

양준일 에세이는 여성 독자 비율이 83.8%로, 남성(16.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40대 여성 독자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여성(18.8%), 50대 여성(18.5%), 20대 여성(7.1%), 60대 이상 여성(5.6%) 순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베스트셀러 담당은 "양준일 에세이는 책 출간 계획이 알려지지 않던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예약판매부터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였다. 출간 후 양준일이 서점에 깜짝방문하고 SNS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리커버 에디션의 인기가 이어졌다. 리커버 에디션을 낸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과 '말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는 각각 5위, 21위에 올랐다.

영화 '작은 아씨들'이 개봉하면서 원작 소설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은 전주보다 81계단 상승한 종합 24위에 올랐다. 여러 출판사에서 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작은 아씨들'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매주 월요일 저녁엔 '특별 인문학 강좌'

고창 문학과관 '책이있는풍경', 오늘 소설 '금강' 김홍정 작가 초청 문학이야기

고창군 개인 문학과관 '책이있는풍경'이 매주 월요일 저녁 특별인문학 강화를 운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고창군과 개인문학과관 '책이있는풍경' 등에 따르면 '두서없는 인문학'이란 제목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인문학 강화를 열고 있다.

24일에는 대하소설 '금강'의 저자인 김홍정 작가와 책이있는풍경 소속 작가들의 문학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하소설 '금강'은 구상부터 취재, 집필까지 장장 15년이 걸린 소설로 16세기 중종반정 이후부터 임진왜란 시기까지 100년의 역사를 10권에 담았다.

소설은 당시 충청지역에 실제 있었던 반역사

건 '이몽학의 난'을 모티브로 하여 섬세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한과 철저한 역사의식을 탁월하게 보여줌에 박초 홍명희의 '입격정', 박경리의 '토지'를 읽는 역사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초청강좌는 문학작품 상상으로 작가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소설 속 등장 인물이야기로 소설을 이해하고,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까지 다시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 류지남, 하재일, 육근상 시인 등 책이있는풍경 소속 작가들과 김학태 문화해설사, 정성모 문예비평가가 참여하여 군민들에게 소소하지 않은 문학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선댄스 등서 성과 낸 '콘텐츠 원캠퍼스', 올해 확대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콘텐츠 융복합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콘텐츠 원캠퍼스(One Campus)'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제작된 작품이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성과도 거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난 21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2019 원캠퍼스 콘텐츠 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크리엔리버 엔터테인먼트 등 28개 기관과 14개 컨소시엄 및 약 1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성과를 공유했다.

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의 경우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해 전년보다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전통무용·대금으로 '한국의 멋' 알리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국제 모어의 날' 행사서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지난 21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국제 모어의 날' 행사에 전북도 도립국악원과 함께 우리 전통 무용인 '춘앵전'과 '대금' 연주로 한국의 멋과 전라북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글라데시 '국제 모어의 날' 행사는 유네스코가 방글라데시의 언어 수호 운동 기념일을 기념하여 1999년 제정한 날로 매년 2월 21일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방글라데시, 캐나다, 시에라리온 대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및 외교부 지역담당국장 등 주요내빈 및 10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



한 외교관 등 내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유도 및 이미지 제고를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